

‘달빛동맹’ 광주·대구, 국정과제 공동 대응 협력 강화

초광역SOC·AI·문화관광·사회안전망 등 15개 협력과제 논의
‘5극3특’ 실현 공공기관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성과 창출 최선

광주시와 대구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공동 발전 전략과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양 도시는 초광역 교통망과 인공지능(AI) 산업·문화관광 개발, 사회안전망 강화, 균형성장 거점 등 5대 분야 15개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교류를 넘어 국정과제 실현과 지역 상생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연대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서 양 도시는 국정과제와 맞물린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 도시는 미래산업·교통·문화·안전·균형성장 전반에서 국가정책과 지역발전을 연결하는 대표 모델을 창출하기로 했다.

핵심은 광주·대구 AX(인공지능 전환)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국비 반영 건의였다.

두 도시는 AI와 반도체,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공동 거점을 조성하고, 인공지능 융합 핵심인재를 공동 양성해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계사업을 공동 발굴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5극3특’(5대 초광역, 3개 특별 자치도) 전략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양 도시는 오랜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전제조건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사업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초광역

교류 촉진에 직결되는 상징적 프로젝트다.

광주시는 17일 국회에서 대구시와 함께 달빛철도 경우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달빛철도 예타 면제 확정 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 도시는 정부에 적극적 관심과 신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광주와 대구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협력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확정하고, 향후 국비 확보 및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속에서 공동 발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논의를 통해 달빛동맹 협력의 추진 기반을 다졌으며, 앞으로도 대구시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광주와 대구가 공동변영을 향해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평가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와 대구는 오랜 시간 상생과 신뢰를 기반으로 달빛동맹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논의는 국정과제와 연계한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역시 “오늘 회의는 양 도시의 굳건한 달빛동맹이 한층 더 강화되는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균형발전 전에 기여하고,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소상공인도 라이브커머스 판매

15일 광주 북구 태봉생활체육관 내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센터개소식에서 소핑호스트들이 라이브커머스 방송 리허설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시민 숙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공사 첫 삽

22일 국립광주박물관서 기공식
4→6~8차로...도심 병목 해소 기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공사가 22일 본격 시작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2일 오전 국립광주박물관 정원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기공식을 진행한다.

시는 기공식을 통해 공사 시작을 시민에게 공식 알리고, 현장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확장 공사 대상은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11.2km

구간의 호남고속도로다. 기존 왕복 4차로를 6~8차로로 넓혀 병목을 풀겠다는 계획이다.

이 구간은 일평균 통행량이 13만8800대로 적정 통행량(5만1300대)의 2.7배에 달해 5년 연속 서비스 등급 ‘F’를 받은 만성 정체 구간이다.

공사가 끝나면 용봉IC 신설과 함께 주요 간선도로 연결성이 높아지고 통행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 공사는 예산 논란과 재정 부담의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13년 예타 당시 2763억원이던 총사업비는 방음터널 철거·재시공과 신규 공동주택 소음대책 반영 등으로 7934억원까지 늘었다.

방음터널만 6.6km가 필요한 점도 비용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시는 매년 10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우려를 이유로 전액 국비를 요구하며 시비 집행을 보류했고, 정부는 사업 의지 부족을 이유로 37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후 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참여한 공론화가 열리면서 기존의 국·시비 5대5 분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됐고,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 183억원이 반영돼 연내 착공 여건이 마련됐다.

시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기간 교통 혼잡 최소화 대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대응제약, AI헬스케어 신산업 이끈다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협약

광주시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실증과 스타트업 육성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추진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대응제약, 동구와 ‘광주시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AI 기반시설과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대응제약은 AI를 활용한 신약과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개발을 확대하며 초기 창업기업을 육성한다.

동구는 의료·복지 기반시설을 연계해 임상과 현장 실증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한다.

대응제약은 동구에 실증센터를 설립해 디지털 치료기기 등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고 액셀러레이터(산업의 중심축 역할)으로서 지역 기업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실증-검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지역 AI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시는 실증센터가 가동되면 초기기업의 임상 접근성과 데이터 축적 능력이 강화돼 제품 고도화와 시장 진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재 대응제약 대표이사는 “광주가 가진 기반시설과 실증 환경은 기업 혁신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며 “AI와 헬스케어 융합기술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의 AI 인프라와 동구의 실증환경, 대응제약의 역량이 결합되면 AI 헬스케어 분야의 선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기반시설과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골목상권 활성화 앞장...광주시, 골목형상점가 전국 최다

480곳 지정...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두달새 67% 증가

광주시가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대폭 확대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9월 현재 광주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480곳으로 전국 1083곳의 44%를 차지해 수도권 전체 312곳(서울 137·경기 135·인천 40)을 웃돌았다.

시는 지난 7월 5개 자치구와 유관기관 등 12개 기관과 ‘골목형상점가 광주 전역 확대’ 업무협약을 맺은 뒤 두 달 만에 261곳을 추가 지정했다. 각 자치구에는 현장 지원단을 5~10명씩 배치해 상인회를 직접 찾아가 지정 신청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까지 밀착 지원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정

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의 관문이다. 소비자는 할인·환급으로 결제 부담을 줄이고, 상인은 매출 회복과 고객 기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9월 현재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만 1798곳으로, 6월 말 1만3025곳에서 두 달 새 67% 늘었다.

온누리상품권은 상시 10% 선할인에 환급행사 10%가 더해지고, 특별재난지역인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삼도동에서는 추가 10% 환급이 적용된다. 시는 여기에 11월부터 광주 소재 가맹점 결제액의 5%를 자체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소비 활성화와 패키지도 병행한다. 이달부터 광주 상생카드 할인율은 7%에서 13%로 확대돼 1인당

월 최대 6만5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는 5% 추가 캐시백이 붙는다. 공공배달앱 할인쿠폰도 기존 주말·명절 지급액에 1000원을 더해 외식업 매출 회복을 뒷받침한다.

자금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됐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별보증 1700억원을 편성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3~4% 이자 지원을 병행한다.

시와 공공기관은 부서별로 골목상권과 1대1 매칭을 맺어 지정 상권 식당 이용과 장보기를 월 2회 이상 실천하는 등 일상적 소비 확산에도 나선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골목상권은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현장”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정책으로 골목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